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9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0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03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달성 위한 모항 산업 활성화 추진
- 07 여수·광양항, 자동차 컨테이너부두 테스트베드 조성 및 16선석 확충 추진
- 12 동해·묵호항,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 착수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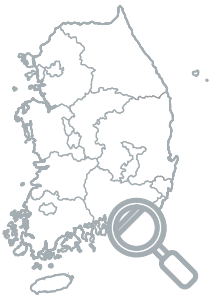
- 20 중국, 북극항로 주간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 최초 개시
- 24 파나마운하, 엘니뇨 대비 네오파나막스 흘수 제한 강화
- 27 EU, 400GT급 일부 선박까지 ETS 적용 확대 추진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31 반도체 수출 호조 반영, 경제성장률 전망 3.0%로 상향
- 55 자동차산업, 부품 수급 차질·중동 전쟁 장기화로 생산·내수·수출 동반 감소
- 66 석유화학 업종 구조재편 본격화,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인공지능 기반 항만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관리 기술 상용화 추진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와 주식회사 엔키아가 공동 개발한 항만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관리 기술이 정부 상용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 1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됨
 - 2026년 6월부터 12개월간 시제품 제작과 현장 실증 확대 등을 추진해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임
 - 부산항만공사는 실증 대상 장비 선정과 부두 운전자 협조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엔키아는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기술 통합 운영체계 개발 등 제품화와 상용화 전 과정을 수행할 예정임
- 자기 신호와 AI를 활용해 와이어로프의 이상 징후와 잔존수명을 진단하고 현장 정비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임**
 - 기존 육안 점검 방식의 내부 결함 식별과 돌발 고장 예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 신호 기반 진단장치와 인공지능 연산 기술을 적용함
 - 계측 데이터와 크레인 운전 조건, 유지보수 이력을 통합 분석하고 자동 보고서와 경보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북항 신선대감터미널과 신항 1·3·4·7부두 등 참여 의향을 밝힌 5개 부두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건설 현장에서 검증된 적용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부산항 현장 적응성을 높일 예정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23.),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462\(2026.07.27.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462(2026.07.27. 검색))

2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달성을 위한 모항 중심 산업 활성화²⁾

-  **BPA는 2030년 크루즈선 520항차와 관광객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
 - ‘크루즈 유치’, ‘국내 저변 확대’, ‘연관산업 활성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함
 - 부산항 크루즈 이용 실적은 2025년 203항차, 약 25만 7,000이며,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219항차, 약 32만 명을 기록함
 - 2026년 연간 이용 규모는 총 420항차, 약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모항 중심으로 전환하고 북항과 영도 지역의 크루즈 수요 대응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인천국제공항 입국, 서울 관광, 한국고속철도(KTX) 이동과 부산항 승선을 연계한 모항 상품을 2026년 4항차에서 2027년 이후 10항차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준모항 상품은 2026년 20항차에서 2027년 이후 30항차 이상으로, 1박 2일 체류형 크루즈는 2026년 9항차에서 2027년 이후 20항차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26년 말까지 북항 크루즈터미널의 관세·출입국·검역(CIQ) 구역과 대합실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축하고,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보안장비 6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임
 - 승객 5,000명 이상 규모의 크루즈선의 모항 운영이 가능한 전용 크루즈터미널을 2030년까지 신축할 계획임
-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와 지역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크루즈 체험 프로그램과 국제행사 연계 포트세일즈를 확대하고, 부산·제주 동시 기항 상품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
 - 지역기업과 글로벌 선사 간 사업상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부산과 울산·경남·경북을 연계한 권역 관광상품과 체험형 관광상품을 확대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30.),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524\(2026.07.2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524(2026.07.2 검색))

3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³⁾

-  BPA는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국 항만 최초의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함
 -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부터 사업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고성능 레이더, 무선주파수(RF) 탐지기, 전기광학·적외선(EO/IR) 카메라를 통합해 불법드론의 접근을 24시간 탐지·식별·추적함
 - 미허가 드론이 항만보안구역에 진입하면 전파 방해 기술로 통신을 차단하고 안전 구역에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하도록 조치함
-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위험 단계별 운영지침을 마련해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함
 - 위험 단계별 세부 대응절차를 마련해 불법드론 접근·침입에 대한 대응력과 항만 방호 태세를 강화함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항만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7.03.),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531\(2026.07.27.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531(2026.07.27. 검색))

2) 인천항



① 인공지능·신소재 등 신기술 활용해 스마트·안전 항만 전환 추진⁴⁾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AI·신소재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인천항 현장을 관리·운영하는 스마트·안전 항만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과 화물차 통행이 활발한 국가 핵심 물류거점으로, '씨앤에어(Sea&Air) 운송' 확대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가스시설 등을 갖춘 복합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연안여객 100만 명, 크루즈 여객 8만 명이 오가며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 변화 흐름에 대응해 항만 관리·운영 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 AI를 활용한 물류·도로·안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

- 공사가 관리하는 CCTV·드론 등 인천항 정보와 인천국제공항·인천시 정보를 연계한 3D AI 엔진을 구축해, 화물차 기사에게 인천항 야적장과 인천국제공항 물류창고를 연결하는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간접자본(SOC) 연계 AI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 항만 도로를 순회하며 포트홀을 탐색·자동 복구하는 AI 도로관리 로봇카를 운영하며, 20cm 이하 소형 포트홀 기준 20분 이내 복구가 가능해 화물차 교통 흐름 유지와 포트홀 사고 예방이 기대됨
- 비전언어모델(VLM) 기반 AI가 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실시간 감시해 작은 불씨라도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함으로써, 초동 대처가 어려운 항만 태양광 설비의 대형 화재를 예방함

● 신소재 기술을 활용한 항만 관리·운영도 함께 추진함

- 가스 보관시설·화재취약시설 등에 특수 소재 반도체를 삽입한 후각장치(전자지능 코)를 도입해, 현장의 후각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화재·가스 누출을 초기에 파악하고 주변 근로자에게 경보를 제공함
- 여객터미널 탑승 대기 장소·여객선 접안시설 등 야외 공간에 조류 기피 신소재 도료를 적용해 갈매기·비둘기 등 조류로 인한 소음·배설물 피해로부터 여객을 보호함
- IPA는 DX(디지털 전환)·AX(AI 전환) 등 기술 발전 흐름에 대응해 현장 전반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이용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대한경제(2026.07.01.),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no=202607011030363660458(2026.07.25. 검색)

2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본격 운영⁵⁾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는 인천항 전역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힘

- 드론을 이용한 항만시설 무단 접근·불법 촬영·테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중요 항만의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 양 기관은 북항·내항·국제여객터미널·신항 등 인천항 주요 보안거점에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장비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등이 집적된 인천항의 특성상, 항만 시설과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안티드론시스템은 실시간 탐지부터 위협 대응까지 단계별로 운영됨

-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실시간 탐지한 뒤 조종 신호와 영상 신호를 분석하고, 가시광·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위협 드론으로 판단될 경우 고정형 대응 장비를 활용해 조종 신호를 차단하거나 강제 착륙을 유도하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으로 대응함
- 불법 드론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항만시설 보호는 물론 여객·근로자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물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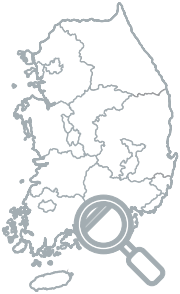
-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운용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무단 비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행 희망자는 비행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천항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불법행위와 잠재적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해사신문(2026.07.0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011>(2026.07.25.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테스트베드 조성·계류시설 16선석 확충 추진⁶⁾

- 해양수산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산업 지원과 스마트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로 조성 중임
 - 해수부는 자동화 터미널 운영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계를 통해 항만기술산업을 집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묘도와 포스코 부지에 조성되는 LNG부두는 남해권 친환경 에너지 생산·유통·공급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아울러 2030년까지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항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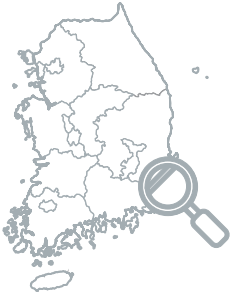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LNG 벙커링, 철재, 목재, 석유화학, 유류 부두 등 계류시설 16선석이 새로 확충되고 기존 3선석은 기능을 폐쇄함
 - 이에 따라 접안능력은 110선석에서 123선석으로,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272만 TEU에서 408만 TEU로 늘어날 전망임
 - 여천 제2항로를 확장해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통항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낙포부두는 리뉴얼 이후 액체부두에서 기타광석부두로 기능을 전환할 방침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6)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2026.7.16.),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7502&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375&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9&searchValue=%ED%95%AD%EB%A7%8C>(2026. 07. 25. 검색)

4) 울산항



부두운영사(TOC) 선정
대상 부두 일부 전경

1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모 추진⁷⁾⁸⁾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울산본항 주요 부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선정을 추진 중임
- 대상은 울산본항 6부두 4·5번 선석과 7부두, 8부두 1번 선석이며,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2026년 7월 24일 종료됨
- 화물유치능력, 항만현대화 기여도, 업체 신뢰도와 함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평가할 계획임
- 선정심사는 2026년 7월 31일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8월 3일 17시 이후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1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462>(2026.07.27.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1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462>(2026.07.27. 검색)

8) 울산항만공사 공지사항(2026.06.1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6&mid=0601000000&idx=16422>(2026.07.27. 검색)

2 UPA, 유휴선석 활용을 통한 조선사 시운전 선박 계류 지원⁹⁾

-  UPA는 조선사의 안벽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 북신항 유휴선석을 시운전 선박 계류 공간으로 지원함
 - 지원 대상은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 3번과 5번 선석이며, 부두 운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약 1년간 조선사에 제공할 계획임
 - 조선업 수주 증가로 시운전 완료 선박의 장기 안벽 점유와 다중 접안, 외해 대기가 발생함에 따라 생산공정 지연과 안전사고 위험, 연료 소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함
 - 조선사는 시운전 여건 개선과 안벽 부족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울산항은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울산항은 유휴시설 지원과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항만과 조선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함
 - 2025년 앨런 셰퍼드함 지원을 시작으로 미국 해군 MRO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음
 - 항만과 조선산업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울산항만공사(2026.06.24.),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Idx=671&mid=0501010000&idx=16471>(2026.07.27.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수소·암모니아 부두 신설로 친환경 에너지 화물 처리 기반 확충 추진¹⁰⁾

- ▶ 평택·당진항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대중국 수출입 화물 처리 거점이자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 송산지구에는 수소·암모니아 부두가 조성돼 친환경 에너지 화물을 처리하는 운영체계가 갖춰질 예정임
 - 남양만지구에는 LNG 벙커링 방파제와 벙커링부두 조성이 추진됨
 -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도입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항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 ▶ 2030년까지 부두 시설이 확충되고 일부 부두의 기능도 재배치될 예정임

 - 포승지구 잡화·양곡부두와 송산지구 액체부두 등 7선석이 새로 확충되고 기존 1선석은 기능을 폐쇄함
 - 이에 따라 접안능력은 66선석에서 72선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포승지구 국제여객부두는 2030년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서해권 어업관리 거점 기능이 추가됨
 - 송악부두는 3번 선석 기능을 폐쇄하고 4~6번 선석을 확장해 대형 철광석 운반선의 접안 안전성을 높일 계획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10)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2026.07.16.),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7502&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375&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9&searchValue=%ED%95%AD%EB%A7%8C>(2026. 07. 25. 검색)

6) 포항항



1 해수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포항항 LNG 부두 확충 계획 반영¹¹⁾

-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에 수소·암모니아·LNG 등 미래 에너지 항만 구축 방안을 대폭 반영함

 - 대산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울산항에는 수소·암모니아 생산·저장시설을, 부산항·광양항 등 5개 항만에는 LNG 벙커링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임
- 포항항에는 LNG 터미널 및 부두가 확충될 예정이며, 광양항과 함께 중장기 LNG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계획임

 - 해수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물류거점 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임
 - 아울러, 총투자 규모 21조 4천억 원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42조 9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1) 이투데이(2026.07.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4836>(2026.07.27.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 착수¹²⁾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권 시멘트 제조·화력발전소 운영 및 국가 기반 산업 원자재(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2026년 6월 착수했다고 밝힘

- 이번 건설공사는 동해항 석탄 수요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동해항은 만성적인 체선·체화를 겪어 왔으며, 석탄부두 개장 시 이를 완화하고 인근 발전소·산업단지에 원활한 석탄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석탄부두 개장은 지역 물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부두 개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각종 부대시설 활성화가 예상되며, 동해신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신항 석탄부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해신항의 환동해권 중심 항만 경쟁력 확보를 지속 지원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6.07.07.),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32966>(2026.07.25. 검색)

2 강원특별자치도, 신해양산업 거점 육성 등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¹³⁾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맞춰 동해·묵호항을 신해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동해안 항만별 특화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가 최근 확정·고시한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과 옥계항·주문진항 개발계획이 반영됨
 -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항만 정책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이후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마련됨
- 국가관리항만인 동해·묵호항은 기능 재편을 통해 지구별 역할을 세분화함
 - 동해지구는 해양안보 강화와 신해양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항만 기능을 확대하고, 묵호지구는 항만 재개발을 통해 여객·해양관광 중심 항만으로 특화할 계획임
 - 동해항 북부두의 기타광석 처리 기능은 신항으로 이전하고 시멘트 화물은 남부두로 집적화함
 - 기존 북부두에는 국가어업지도선·국방과학연구소·해양경찰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등을 조성해 신해양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 지방관리항만인 옥계항·주문진항도 기능 개편을 추진함
 - 옥계항은 기타광석 전용부두를 잡화 취급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고 3만 톤급 접안이 가능한 270m 규모 부두로 확충하며, 주문진항은 이전 부지를 관공선 전용부두(130m)로 전환해 해양 행정·관리 기능을 강화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정계획이 동해안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항만정책의 결과라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3) 신아일보(2026.07.21.),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989>(2026.07.25. 검색)

8) 목포항



① 해수부, 목포항 해상풍력 기자재 전용부두 지정¹⁴⁾

- 해양수산부는 물동량 증가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변화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7월 20일 고시함

 - 2030년까지 전국 항만 하역능력을 현재 연간 12억 8천만 톤에서 15억 5천만 톤으로 21.3% 확대하고 총 2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이번 수정계획에서 목포항 일부 부두는 대형 해상풍력 기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군산항, 인천항, 울산항에도 해상풍력 전용부두가 신설되고 태안항에는 유지·관리용 부두가 마련되는 등 총 8선석 규모의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임
- 목포항의 해상풍력 기자재 전용부두는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해상풍력을 통한 전력 공급과 항만 시설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이투데이(2026.07.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4836>(2026.07.27. 검색)

9) 대산항



① 한·중 국제여객항로 개설 확정 및 국제 크루즈 운항 확대¹⁵⁾

-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연결하는 국제여객항로 개설이 확정됨**
 - 대산항과 석도항을 잇는 항로는 총 365km이며, 국제여객선이 주 3항차 운항하는 규모로 추진됨
 -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카페리선 신조 설계와 해양수산부 운항 면허 취득을 준비할 계획임
 - 서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신규 항로의 조기 개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임
- 서산 대산항은 2026년 국제 크루즈선의 모항 출항과 기항을 연이어 운영함**
 - 코스타세레나호는 2026년 6월 13일 대산항에서 세 번째로 출항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을 마침
 - 중국 텐진동방국제크루즈社의 10만 톤급 비지오(VISIO)호는 6월 27일 대산항에 처음 기항했으며, 중국인 관광객 약 2,000명이 서산을 방문함
 - 서산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원활한 방문을 위해 주요 관광지 수용 태세, 통역 안내와 편의시설 등을 정비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5) 서산시 보도자료(2026.06.21.),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336248&searchCtgr=&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7.27.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336248&searchCtgr=&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7.27. 검색))

10) 군산항



1 7부두 75번 선석 해상풍력 지원항만 반영¹⁶⁾

-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반영됐다고 밝힘

 -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터빈·블레이드·하부구조물 등 초대형 기자재를 제작·보관·조립하고 해상으로 운송·설치하는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해상풍력 산업에서 발전단지 못지않게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힘
 - 이번 지정으로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항만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군산항은 입지·배후 산업 기반 측면에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군산항은 서해안 중심에 위치해 전북·충남권 해상풍력 사업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가산업단지·새만금 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 기반과 연계가 가능함
 - 대형 기자재의 보관·조립·운송에 필요한 항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1.02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에 이어 이번 지원항만 반영으로 서해안 대표 해상풍력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함
-  군산시는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완성도 높은 해상풍력 지원항만 체계 구축을 추진함

 - 75번 선석의 설치 지원 기능과 연계해 76·77번 선석까지 기자재 야적·보관·조립 등 배후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임
 - 집적화단지·군산항·배후 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자재 제작부터 조립·운송·선적·해상 설치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기자재 산업 집적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6) 투데이군산(2026.07.20), <https://www.todaygu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3>(2026.07.25. 검색)

군산항 해상풍력지원부두
예상도



자료: 군산시(AI 생성 이미지)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마산항



① 이스턴카라이너社, 신조 다목적선 ‘기가트랜스’호 마산항 첫 취항¹⁷⁾

- 일본 선사 이스턴카라이너(ECL, Eastern Car Liner)는 5월 28일 일본 혼다조선소에서 인도받은 재화중량톤수(DWT) 1만 8천 톤급 신조 다목적선(MPP) ‘기가트랜스(GIGA TRANS)’호를 마산항에 투입하며 첫 취항을 시작함
- ‘기가트랜스’호는 250톤급 헤비크레인 2기를 탑재해 최대 500톤의 중량물 처리가 가능하며, 가변형 트리플갑판(Triple-Deck)을 적용하여 초중량물부터 일반 잡화·철재까지 선적이 가능함
- ECL은 마산항과 미국 롱비치·에버렛, 캐나다 밴쿠버를 연결하는 북미 노선에 동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7) 코리아슈핑가제트(2026.07.0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7508(2026.07.27.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중국 주요 항만, 태풍 ‘바비’ 영향으로 항만 혼잡 심화¹⁸⁾

- 태풍 ‘바비’로 일시 폐쇄됐던 상하이항, Ningbo항, Qingdao항의 운영이 재개됐으나, 선박 대기시간과 대기 선박 수가 증가하며 운영 차질이 지속됨
 - 상하이항과 Ningbo항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Qingdao항은 13일부터 14일까지 폐쇄됐으며, 창고와 컨테이너 장치장, 세관 및 선박 운영을 포함한 항만 서비스 전반이 영향을 받음
 - 상하이 양산심수항의 선박 대기시간은 제미니 서비스 기준 3일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제미니 서비스 외 선박은 접안까지 최대 6일이 소요됨
 - Ningbo항의 선박 대기시간은 기존 최대 2일에서 3일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Qingdao항의 선박 대기시간도 최대 3일로 증가함
 - 태풍의 영향은 샤먼항, 푸저우항, 가오슝항, 지룽항, 마닐라항으로 확대됐으며, 일부 선박에서는 10~12일의 운항 지연이 발생함
- 상하이항과 Ningbo항의 대기 선박 선복량이 100만 TEU를 넘어서면서 선사들은 기항을 취소하고 주변 항만을 통한 환적 운송에 나섬
 - 상하이항의 대기 선박은 일주일 사이 57척에서 129척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Ningbo항도 같은 기간 33척에서 55척으로 늘어남
 - 덴마크 국적 선사 머스크(Maersk)는 드래곤(Dragon) 서비스에 투입된 6,350 TEU급 선박과 6,492 TEU급 선박의 상하이항·Ningbo항 기항을 취소하고, 해당 항만의 수입화물을 홍콩항에서 하역·환적하기로 함
 - 제미니 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정기선 서비스가 두 항만을 건너뛰면서 상하이항과 Ningbo항행 화물은 부산항과 홍콩항 및 싱가포르항에서 환적된 뒤 복귀 항차를 기다릴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18) Journal of Commerce(2026.07.16.), <https://www.joc.com/article/vessel-delays-worsen-at-key-chinese-ports-after-typhoon-moves-through-6254676>(2026.07.24. 검색)

2 씨레전드 쉬핑, 북극항로 주간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¹⁹⁾

- 중국 국적선사 씨레전드 쉬핑(Sealegend Shipping)은 2026년 8월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중국-유럽 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임
 - 운항기간은 8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1,500~4,900TEU급 컨테이너선 7척이 총 8회의 항해를 수행함
 - 첫 항해에는 1,740TEU급 두바이 타워(Dubai Tower)호가 투입돼 8월 12일 중국을 출발, 9월 5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할 예정임
 - 서비스 대상에는 일반 컨테이너, 냉동·냉장화물, 규격초과화물 및 위험물로 분류되는 배터리 화물이 포함됨
 - 기존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송이 일회성 실증이나 부정기 운항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서비스는 하계 항행기간 동안 매주 출항하는 정기선 방식으로 운영됨
- 중국 주요 항만에서 출발한 화물은 닝보-저우산항에 집하된 뒤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 4개 항만으로 운송됨
 - 다롄·칭다오·상하이·타이창·푸저우·난사에서 출발한 화물은 피더선을 통해 닝보-저우산항으로 운송된 뒤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적재됨
 - 유럽에서는 펠릭스토우항(영국), 로테르담항(네덜란드), 빌헬름스하펜항(독일), 그디니아항(폴란드)에 기항할 예정임
 - 씨레전드는 함부르크까지 20~22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운항 거리 단축으로 기존 남방 항로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계절적 결빙과 높은 보험료, 선박선 확보의 불확실성 등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관계자들은 이번 운항을 통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의 상업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19) gcaptain(2026.07.15.), <https://gcaptain.com/china-launches-first-scheduled-weekly-arctic-container-service-to-europe/>(2026.07.24. 검색)

2) 아시아



① 싱가포르항, 신화·발틱 ISCDI 13년 연속 1위 기록²⁰⁾

싱가포르항은 2026년 신화·발틱 국제해운센터 발전지수(ISCDI,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에서 100점 만점에 99.32점을 기록하며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싱가포르의 전략적 입지와 해운금융·보험·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수준, 친환경 연료 개발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역할이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싱가포르항은 2025년 역대 최대인 4,466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32억 2천만 GT의 입항 선박 총톤수를 기록함
- 벙커유 판매량도 역대 최대인 5,677만 톤을 기록해 세계 최대 벙커링항의 지위를 유지함

중국 통신 매체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과 발틱거래소가 공동 발표하는 ISCDI 보고서는 전 세계 43개의 주요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항만 운영과 해운 전문 서비스 및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 평가함

- 상하이는 84.27점으로 런던을 앞질러 2위로 상승했으며, 런던은 81.80점으로 3위, 홍콩은 80.87점으로 4위, 두바이는 77.13점으로 5위를 기록함

2026년 기준 ISCDI
상위 20위 항만

Rank	Country	City	Compared to 2025
1	Singapore	Singapore	same
2	China	Shanghai	up one
3	UK	London	down one
4	China	Hong Kong	same
5	UAE	Dubai	same
6	China	Ningbo-Zhoushan	up one
7	Netherlands	Rotterdam	down one
8	USA	New York/New Jersey	up two
9	Greece	Athens/Piraeus	down one
10	Germany	Hamburg	down one
11	China	Guangzhou	up one
12	China	Qingdao	up one
13	USA	Houston	down two
14	Korea	Busan	up one
15	Japan	Tokyo	down one
16	Belgium	Antwerp-Bruges	same
17	China	Tianjin	up one
18	China	Shenzhen	down one
19	USA	Los Angeles	same
20	Canada	Vancouver	same

자료: Safety4sea(2026.07.13.), [https://safety4sea.com/singapore-extends-reign-in-global-shipping-centre-rankings-as-shanghai-climbs/\(2026.07.24. 검색\)](https://safety4sea.com/singapore-extends-reign-in-global-shipping-centre-rankings-as-shanghai-climbs/(2026.07.24. 검색))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0) Safety4sea(2026.07.13.), [https://safety4sea.com/singapore-extends-reign-in-global-shipping-centre-rankings-as-shanghai-climbs/\(2026.07.24. 검색\)](https://safety4sea.com/singapore-extends-reign-in-global-shipping-centre-rankings-as-shanghai-climbs/(2026.07.24. 검색))

2 일본 도쿄항, 비첨두시간대 컨테이너 셔틀운송 추진²¹⁾

- 도쿄도 항만국은 컨테이너터미널과 도쿄항 내 컨테이너 장치장을 연결하는 비첨두시간대 셔틀운송 시범사업을 추진함
 - 이번 사업은 터미널 게이트의 혼잡도가 비교적 낮은 오전 시간대에 컨테이너 반출입을 유도해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는 화물차 통행을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오전 시간대에 터미널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항만 내 셔틀 운영사를 통해 컨테이너를 반출입할 수 있음
 - 시범사업에서는 셔틀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약·정보공유 시스템과 새시 공동이용 체계도 함께 시험할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 인도발 선박 부족으로 주요 선사 수출화물 예약 관련 수수료 강화²²⁾

- 인도발 미국·유럽 수출화물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요 선사들이 인도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예약 취소 및 선적 이월 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함
 - 독일 국적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모든 화종의 예약 취소 및 선적 이월 수수료를 컨테이너당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함
 - 인상된 수수료는 선박의 출항예정일 14일 이내에 취소된 예약과 10일 이내에 다음 항차로 이월된 화물에 적용됨
 - 미국항을 제외한 인도발 수출 항로에는 7월 22일부터, 미국항 항로에는 8월 7일부터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임
 - 머스크·MSC·COSCO Shipping·ONE 등 다른 주요 선사들도 관련 수수료를 컨테이너당 100~2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과 기준을 예약 건별에서 컨테이너별로 변경함
 - 또한, 하팍로이드와 머스크는 중량 기준을 초과한 인도발 수출 컨테이너의 할증료를 컨테이너당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했으며, 일부 선사는 현물 예약에 제공하던 선박 및 장비 보장을 중단하는 등 예약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1) Splash Ports(2026.07.04.), <https://splash247.com/tokyo-port-to-trial-off-peak-container-shuttle-in-bid-to-ease-truck-congestion/>(2026.07.24. 검색)

22) Journal of Commerce(2026.07.13.), <https://www.joc.com/article/booking-restrictions-for-india-exports-tighten-amid-rush-6252628>(2026.07.24. 검색)

3) 미주



① LB항·美 해사청, 항만 내 SMR 도입 가능성 검토 추진²³⁾

- 
롱비치항은 미국 교통부 해사청(Maritime Administration)과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비롯해 차세대 항만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함

 - 양측은 항만 내 SMR 기술 적용 방안 및 항만 마이크로그리드, 육상전력 공급체계, 차세대 추진 방식의 선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 이번 협력은 미국 항만의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기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항만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력 양성도 주요 협력 분야에 포함돼, 양측은 항만에 원자력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항만·터미널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검토할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3)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7.23.), <https://www.porttechnology.org/marad-port-of-long-beach-partner-on-small-modular-reactors/>(2026.07.24. 검색)

2 파나마운하, 엘니뇨 대비 네오파나막스 흘수 제한 강화²⁴⁾

▶ 파나마운하청(ACP, Panama Canal Authority)은 엘니뇨(El Niño)로 인한 강수량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네오파나막스(Neopanamax) 갑문 통과 최대 허용 흘수의 조정 계획을 발표함

- 네오파나막스 갑문의 최대 허용 흘수는 7월 24일부터 열대 담수 기준 49.0ft(14.94m), 8월 15일부터 48.5ft(14.78m)로 조정될 예정임
- 이번 조정은 7월 3일부터 적용된 49.5ft(15.09m) 제한에 이은 추가 조치로, ACP는 수문 상황 및 엘니뇨 영향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파나마운하는 가툰호(Gatun Lake)에 저장된 담수에 의존해 갑문을 운영하고 있어 강수량 감소 시 수자원 관리가 통항 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

- 이에 ACP는 가뭄에 따른 통항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절수조 활용 확대, 소형 선박 동시 갑문 통과, 내부 갑문 게이트 운용 등의 절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 올해 엘니뇨가 강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ACP는 가툰호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강수량과 저수량 변화에 따라 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4) gcaptain(2026.07.06.), <https://gcaptain.com/panama-canal-deepens-draft-restrictions-as-el-nino-strengthens/>(2026.07.24. 검색)

4) 유럽

1 발렌시아항, 스페인 최초 해상 태양광 플랫폼 도입²⁵⁾

- 발렌시아항(Port of Valencia)은 스타트업 BlueNewables가 개발한 스페인 최초의 해상 태양광 플랫폼 ‘파이포르타(Paiporta)’의 실증사업을 추진함**
 - 이번에 인도받은 플랫폼의 발전 용량은 500kW이며, 발렌시아항 남측 방파제 외곽에 배치돼 성능 시험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올해 늦여름까지 동일한 용량의 두 번째 플랫폼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1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임
 - 플랫폼에는 직사광선과 해수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해상 환경에서의 발전 성능 및 유지보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쌍둥이형 구조로 설계됨
 - 이번 프로젝트는 발렌시아항만청이 주관하는 렌마리나스 발렌시아포트(Renmarinas Valenciapor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너지다각화·절약연구소(IDAE) 및 넥스트 제너레이션 EU(NextGeneration EU)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 발렌시아항만청은 해양 재생에너지 설비를 시험하고 생산된 전력을 발렌시아항과 사군토항(Port of Sagunto)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임**
 - 해당 인프라는 이번 해상 태양광 실증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파력발전 시스템을 비롯한 다른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할 계획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5) Port Technology Internation(2026.07.13.), <https://www.porttechnology.org/valenciaport-welcomes-spains-first-offshore-solar-platform/>(2026.07.24. 검색)

2 영국, 외국 국적선 대상 항만 통제 강화²⁶⁾

- 영국 정부는 외국 국적선에 대한 검사, 억류 및 항만 접근을 규율하는 신규 항만국통제 규정을 도입함
 - 선박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고위험 선박 및 일정 선령을 초과한 유조선·벌크선·여객선에는 확대 검사가 적용됨
 - 항만당국과 도선사는 해상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선박 결함 발견 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선박의 실제 입항·출항 시각을 제공해야 함
- 관계 당국은 안전·보건·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결함이 확인된 선박을 억류하고, 반복 억류 선박에는 입항 금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됨
 - 파리 항만국통제 양해각서(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권역에서 반복적으로 억류된 선박은 영국 항만과 정박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음
 - 아울러, 추가 억류가 발생하면 입항 금지 기간이 연장되며, 반복적인 결함 발견 및 억류가 지속될 경우 영구 입항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6) Splash Ports(2026.07.15.), <https://splash247.com/uk-tightens-port-controls-on-repeatedly-detained-ships/>(2026.07.24. 검색)

3 EU, 400GT급 일부 선박까지 ETS 적용 확대 추진²⁷⁾

- EU 집행위원회는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 대상을 400~5,000GT급 일부 선박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 현행 제도는 5,000GT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EU 역내 항해 및 항만 내 배출량의 100%, EU-비EU 항만 간 항해 배출량의 50%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제출을 요구함
 -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2031년부터 400GT 이상 5,000GT 미만의 일부 선종에도 이 같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400~5,000GT급 Ro-Ro 여객선 및 일반 여객선은 이번 적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선박의 적용 타당성은 2031년 12월까지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친환경 선박연료 및 저탄소 추진 방식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40년까지 최대 1억 1천만 개의 EU 배출권을 별도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유럽선주협회(ECSA,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는 배정 배출권의 가치를 약 100억 유로로 추산함
 - 해운업계가 2030~2040년 EU ETS에 납부할 금액은 약 900억 유로로 예상되는 가운데, ECSA는 ETS 제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선박과 연료의 에너지 전환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7) Engine(2026.07.20.), <https://www.engine.online/news/proposed-eu-ets-review-brings-smaller-vessels-into-scope-7e95>(2026.07.24. 검색)

5) 오세아니아



1 BHP, 포트 헤들랜드 파업 이후 단체협약 협상 재개²⁸⁾²⁹⁾

호주 광산기업 BHP는 포트 헤들랜드(Port Hedland) 사업장의 항만 운영·유지보수 근로자들이 7월 16일 8시간 파업을 시행한 이후 통합항만노조(Combined Ports Unions)와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함

- 통합항만노조는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포트 헤들랜드 사업장의 항만 운영·유지보수 근로자 약 450명을 대표하고 있음
- 노사는 4년간 적용될 새로운 기업별 단체협약을 놓고 7개월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수십 년 만의 첫 대규모 파업이 발생함
- 파업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후속 협상은 7월 28일 진행됨
- 노사 간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음 협상 이전에 추가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이번 파업의 철광석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쟁의행위가 장기화될 경우 호주산 철광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포트헤들랜드에서는 하루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철광석이 선적되며, 이번 작업 중단으로 BHP 매출 약 8,000만 달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됨
- 다만,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회성 작업 중단이 세계 철광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의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8) Mining(2026.07.15.), <https://www.mining.com/bhp-faces-first-port-hedland-strike-in-decades/>(2026.07.24. 검색)

29) Steel Orbis(2026.07.22.), <https://www.steelorbis.com/steel-news/latest-news/bhp-resumes-talks-with-port-hedland-unions-after-strike-1466403.htm>(2026.07.24. 검색)

6) 아프리카



1 수에즈운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계약 체결³⁰⁾

- 수에즈운하 컨테이너터미널(SCCT,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계약 발효 이후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전력 전량을 태양광·풍력 기반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예정임**
 - 협약은 2026년 7월 1일 이집트 총리와 전력·재생에너지부 장관, 수에즈운하경제구역청(SCZONE, Suez Canal Economic Zone)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로 내각 본부에서 체결됨
 - 이번 계약은 SCCT와 SCZONE, NREA 및 이집트 전력규제기관(EgyptERA)이 2년 이상 협의한 결과로 마련됨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됨
- 기존 화석연료 기반 계통전력을 대체해 연간 약 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SCCT의 운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전환을 통해 APM 터미널그룹 전체 배출량을 기존 대비 약 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CZONE은 이번 계약이 항만 운영활동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세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0) APM Terminals(2026.07.01.),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news-releases/2026/260701-SCCT-first-container-terminal-in-Egypt-fully-renewable-energy?>(2026.07.24.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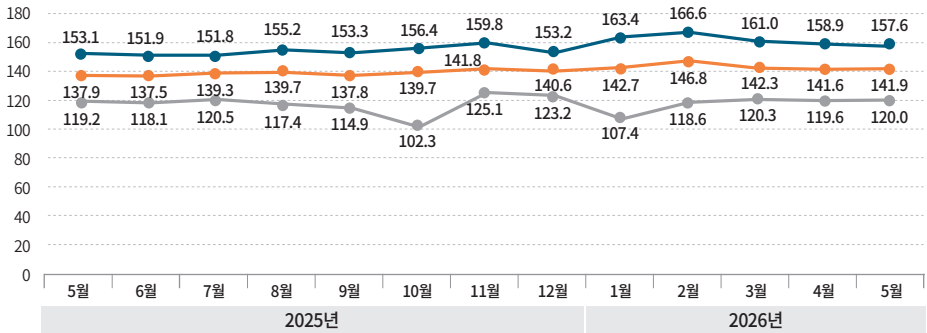


① 2026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전체·중국·유럽 모두 증가

- 2026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41.9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도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6년 3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여 5월에는 전월 대비 0.8% 감소한 157.6p를 기록함
 - 유럽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2025년 10월과 2026년 1월에 큰 하락을 보였으며, 2026년 2월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5월 120.0p를 기록함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7.9	137.5	139.3	139.7	137.8	139.7	141.8	140.6	142.7	146.8	142.3	141.6	141.9	0.1	2.9
China Index	153.1	151.9	151.8	155.2	153.3	156.4	159.8	153.2	163.4	166.6	161.0	158.9	157.6	-0.8	3.0
North Range Index	119.2	118.1	120.5	117.4	114.9	102.3	125.1	123.2	107.4	118.6	120.3	119.6	120.0	0.3	0.6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6.29.), [https://www.isl.org/media/114\(2026.07.27. 검색\);](https://www.isl.org/media/114(2026.07.27. 검색);) [https://www.isl.org/media/115\(2026.07.27. 검색\);](https://www.isl.org/media/115(2026.07.27.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2026년 경제성장률 3.0% 전망³¹⁾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를 반영해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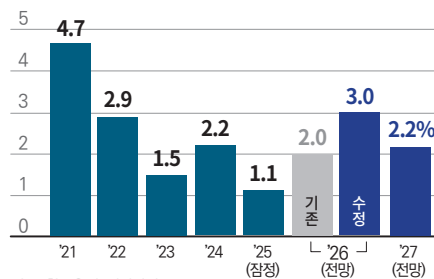
-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수출 증가와 기업 설비투자로 이어진 점을 성장률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함
- 202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처음 1,0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상반기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함
- 민간소비는 2.0%,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5.0%, 건설투자는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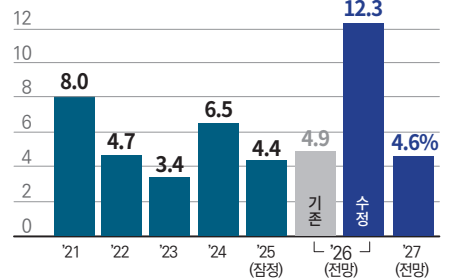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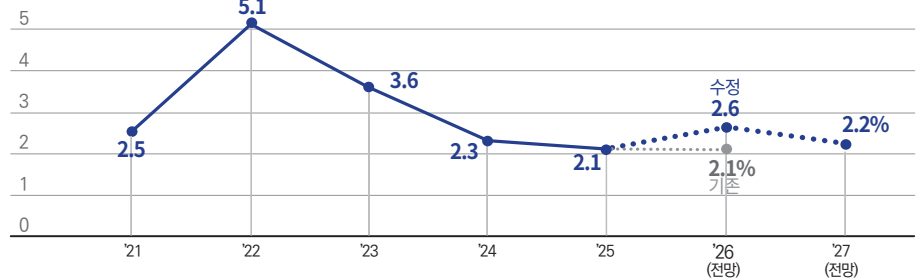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경상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반영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재정경제부

31) 연합뉴스(2026.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66400002?input=1195m>(2026.07.27. 검색)

수출입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함

-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높아져 1996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확대됐으며, 반도체 수출 물가 상승률은 2026년 3월 116.8%, 4월 148.3%, 5월 163.3%를 기록함
- 2026년 통관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40.0%, 20.0%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2,9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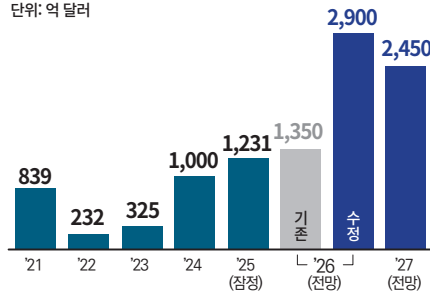
중동 전쟁과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전망은 상향됐으나 수출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6%로 높아졌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반영됨
- 2027년 실질 GDP 성장률은 2.2%, 경상 GDP 성장률은 4.6%로 전망됐으며, 2026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됨
- 2026년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전망돼 수출과 성장 확대에 비해 고용 개선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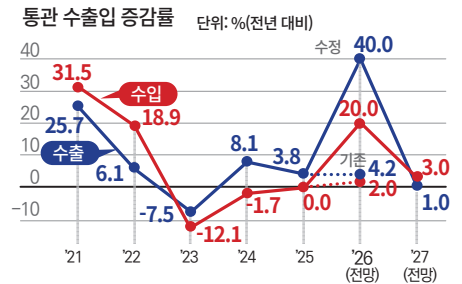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취업자 증가 전망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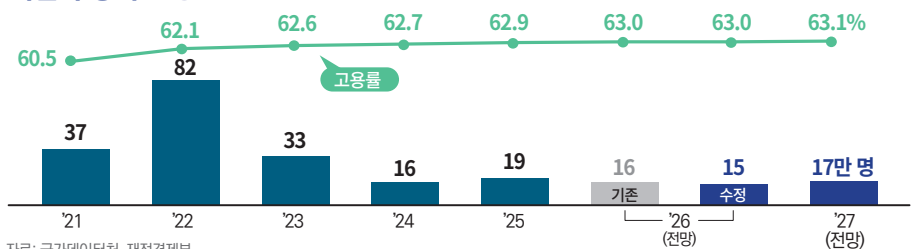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취업자 증가 전망

15세 이상 기준, 전년 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재정경제부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착수³²⁾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 4곳의 생산량 제한과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해운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를 조사함

 - 조사 대상은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포르컨테이너홀딩스 등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약 95%를 점유한 업체 4곳임
 -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한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을 파악 중임
 - 미국 법무부(DOJ)는 해당 업체들이 생산라인 가동시간과 생산량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2026년 5월 기소함
-  담합 기간 중 컨테이너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운사의 장비 조달비와 수입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 20피트 컨테이너 가격은 2019년 1,750달러에서 2021년 3,690달러로, 40피트 컨테이너 가격은 같은 기간 2,800달러에서 5,940달러로 상승함
 - 중국 업체들은 생산라인별 CCTV를 설치해 생산량을 상호 감시하고 신규 생산라인 건설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경쟁 당국은 담합으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 규모를 약 35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컨테이너 가격 상승이 해상운임과 수입 물류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함
-  공정위 조사 결과는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국내 해운사의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될 수 있음

 - 해외에서 이뤄진 담합도 국내 업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국내 해운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제조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2) 한경닷컴(2026.07.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071234i>(2026.07.27. 검색)

3 HMM, 고부가가치 리퍼 컨테이너 운송 품목 확대³³⁾

 HMM은 미국산 오렌지 운송시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을 강화함

- 2026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한국 수입 운송시장에서 3,060TEU를 처리해 점유율 42%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점유율은 2023년 25%, 2,380TEU에서 2026년 42%, 3,060TEU로 상승했으며, 안정적인 장비 공급과 선박 운항 일정 관리가 주요 기반으로 제시됨
- 리퍼 컨테이너는 해상운송 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해 일반 컨테이너보다 운송 난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화물로 분류됨

 오렌지 중심의 운송 실적을 체리, 식품, 화장품과 수산물 등으로 확대해 리퍼 화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

- 미국 워싱턴산 체리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K-푸드와 K-코스메틱 수출 물량에도 리퍼 컨테이너를 활용함
- 서아프리카 신규 지선망에서는 국내산 소형 고등어 수출을 시작했으며, 현지 식문화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함
- 신선식품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학제품 등 온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고부가가치 화물을 지속 발굴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3) 프라임경제(2026.07.15.),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740393>(2026.07.27. 검색)

2) 양곡



1 2026년 6월 CBOT 곡물 가격, 밀·대두·옥수수 동반 하락

- 2026년 6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밀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 전환한 가운데, 대두는 전월 반등에서 다시 하락했으며, 옥수수도 하락하며 세 품목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함

 - 밀은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하고 하락 전환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함
 - 대두는 전월 상승에서 다시 하락 전환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됨
 - 옥수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세 품목 중 낙폭이 가장 컸고, 전년 동월 대비 또한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됨
 - 5월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고, 미국 신곡(2026/27) 작황 호조로 공급 개선 기대가 확산되며 세 품목이 동반 조정된 것으로 분석됨
- 밀 가격은 217달러/톤으로 전월(233달러/톤) 대비 7.1%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9.0% 상승한 수준임

 -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 전환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함
 - 5월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던 중동 정세 불안·공급 우려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미·이란 긴장 완화로 진정되며 그간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됨
- 대두 가격은 414달러/톤으로 전월(438달러/톤) 대비 5.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7.3% 상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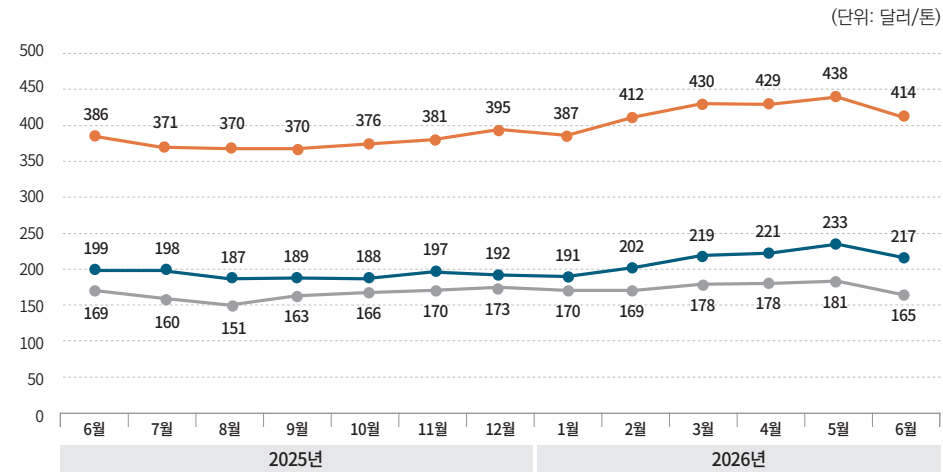
 - 전월 반등에서 다시 하락 전환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전월(두 자릿수)에서 축소됨
 - 미국 신곡의 양호한 기상·작황 호조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신규 구매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가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옥수수 가격은 165달러/톤으로 전월(181달러/톤) 대비 9.3%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9% 하락함

 - 세 품목 중 전월 대비 낙폭이 가장 컸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 전환됨
 - USDA 작황 등급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등 미국 신곡 공급 개선 기대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03 품목 및 산업 동향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6.07.25. 검색)

세계곡물 가격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99	198	187	189	188	197	192	191	202	219	221	233	217	-7.1	9.0
대두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87	412	430	429	438	414	-5.6	7.3
옥수수	169	160	151	163	166	170	173	170	169	178	178	181	165	-9.3	-2.9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026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1.8% 하락 전망³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가 주요 생산국의 수확 진전과 대외 긴장 완화 등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3분기 선물가격지수는 117.5로 전 분기(119.7) 대비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1% 상승한 수준임
- 주요 생산국의 수확 진전에 따른 공급 확대와 미·이란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원자재 시장 약세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단위: 2015=100)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분기별 동향 및 전망

구분	2025년				20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전망)
선물가격지수	114.4	112	105.8	109.4	113.3	119.7	117.5
전 분기 대비(%)	3.1	△2.1	△5.6	3.4	3.6	5.6	△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2026년 7월호

-  2026/27년 밀·옥수수·콩 기말재고율 모두 전월 전망치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밀 세계 기말재고율은 전월 전망치 대비 0.4%p 하락한 34.1%, 옥수수는 전월과 비슷한 22.6%, 콩은 전월 대비 0.6%p 하락한 16.3%로 전망됨
- 반면 쌀 세계 기말재고율은 전월 대비 0.1%p 상승한 35.9%로 전망되어, 세 품목과 상반된 흐름을 보임
-  3분기 국제유가 하락·대미환율 및 곡물 수입단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진전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로 3분기 서부텍사스유(WTI)와 브렌트유는 전 분기 대비 각각 15.1%,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대미환율) 3분기 대미환율은 강달러 기조 등으로 전 분기 대비 0.5% 상승한 1,509원/달러로 전망됨
- (수입단가) 3분기 원화 기준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7.3%, 사료용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 리스크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의 시차 반영, 환율 상승 압력이 원인으로 작용함
- (기상) 2026년 7~9월 엘니뇨 발생 확률이 99%로 전망되며, 호주 동부의 건조 기상에 따른 밀 생산량 감소와 동남아시아·인도의 고온건조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리스크로 지적됨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2026.07.04.), [https://aglook.krei.re.kr/main/uObserveMonth/OVR0000000073\(2026.07.25. 검색\)](https://aglook.krei.re.kr/main/uObserveMonth/OVR0000000073(2026.07.25. 검색))

원화 기준 곡물
수입단가지수 분기별
동향 및 전망

(단위: 2015=100)

구분	2025년				20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전망)
식용	140.2	129.9	131.7	136.3	136.5	141.8	152.2
사료용	138.5	130.2	125.7	124.5	127.6	135.7	146.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2026년 7월호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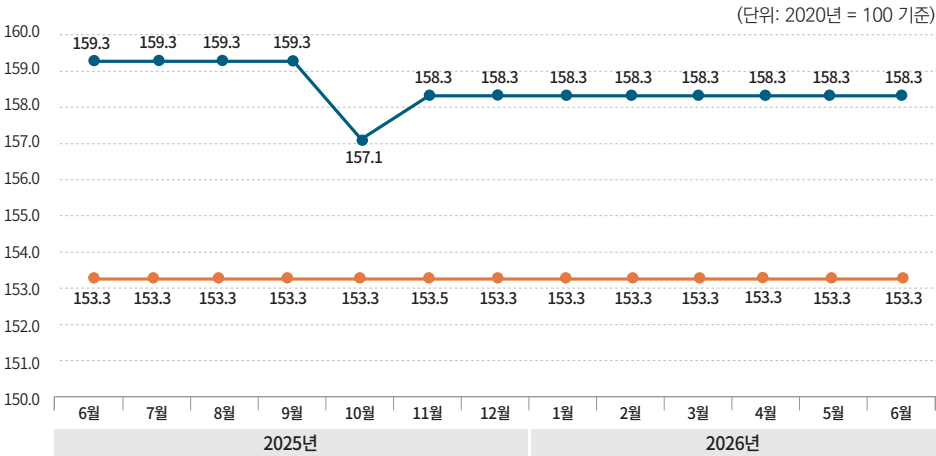


1 2026년 6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026년 6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시멘트 모두 전월 대비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어감
 - 포틀랜드 시멘트는 158.3으로 전월 대비 보합(0.0%)했으며, 전년 동월(159.3) 대비 0.6% 하락함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153.3으로 전월 대비 보합(0.0%)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5년 10월 157.1까지 하락한 뒤 11월 158.3으로 반등해 이후 8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조사 기간 동안 153.3으로 안정세를 지속함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0.0	-0.6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7.25. 검색)

2 수요 감소로 시멘트업계 설비투자 금액 2년 연속 감소 전망³⁵⁾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시멘트업체들의 설비투자 금액이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설비투자 금액은 4,2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4,726억 원) 대비 약 10%, 최근 5년간 평균치(4,992억 원) 대비 13.9% 감소한 수준임
- 시멘트산업 설비투자 규모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 2024년 5,788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급감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이러한 가운데 시멘트산업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설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시멘트협회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증가, 유가 상승, 에틸렌 품귀 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친환경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 건설경기 진작과 시멘트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대한경제(2026.06.29.),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6271957370830972(2026.07.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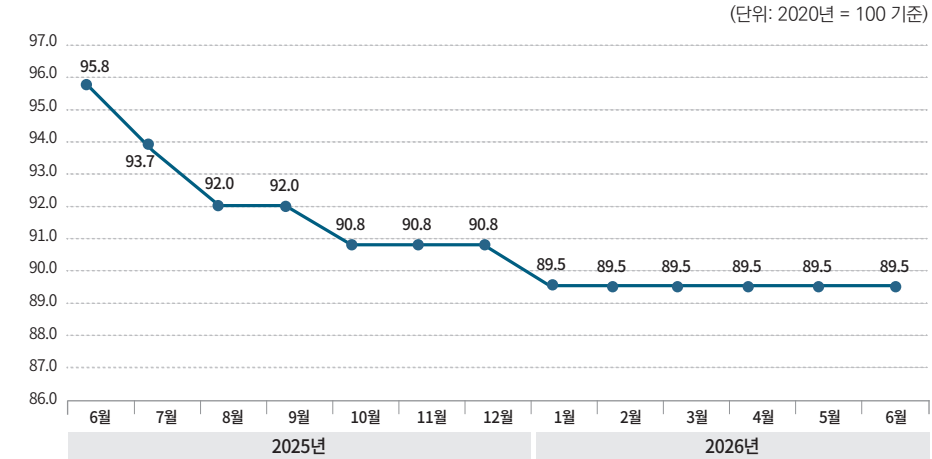
4) 모래



1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 기록

- 2026년 6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함
 - 2026년 1월 이후 6개월 연속 89.5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6월(95.8) 이후 이어진 하락세는 2026년 1월부터 멈추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하락하며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약세 흐름이 다소 완화됨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5.8	93.7	92.0	92.0	90.8	90.8	90.8	89.5	89.5	89.5	89.5	89.5	89.5	0.0	-6.6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7.26.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7.26. 검색))

2 환경규제·수요 확대로 골재 품귀 심화³⁶⁾

- 전국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환경규제와 민원 등에 따른 채취량 감소로 골재(모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모래 가격은 m³당 3만 원 이상으로 1년 전 대비 두 배 넘게 상승했으며, 건설경기 불황에도 웃돈을 주고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골재는 모래·자갈·부순 돌(쇄석) 등을 통칭하는 건설 원재료로, 환경규제·민원 등으로 채취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사가 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천연골재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
 -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비용 부담과 품질 한계를 이유로 부정적임
 -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3기 신도시 착공 등이 본격화될 경우 공사 현장의 자재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관련 비용이 아파트·주택 분양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건설 골재 관련 이해관계



자료:대한경제(2026.07.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602031>(2026.07.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한국경제(2026.07.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602031>(2026.07.26.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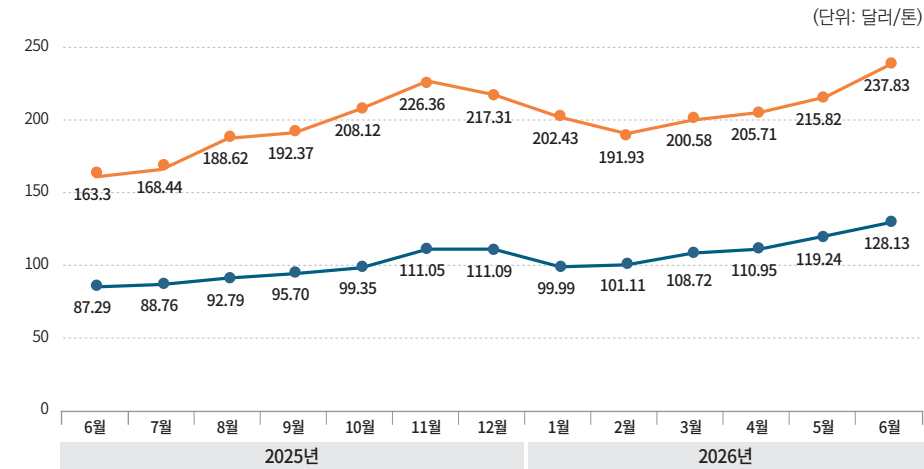


1 2026년 6월 석탄 가격, 원료탄·점결탄 전월 대비 상승

- 2026년 6월 원료탄 가격은 전월 대비 7.5% 상승한 톤당 128.13달러, 점결탄 가격은 전월 대비 10.2% 상승한 톤당 237.83달러를 기록함
 - 원료탄은 2026년 1월 99.99달러/톤 저점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6.8% 상승함
 - 점결탄은 2025년 11월 226.36달러/톤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6% 상승함

석탄 가격 추이

원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87.29	88.76	92.79	95.70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08.72	110.95	119.24	128.13	7.5	46.8
점결탄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200.58	205.71	215.82	237.83	10.2	45.6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7.24](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7.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2026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석탄화력 추월 전망³⁷⁾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2026년 세계 석탄화력 발전이 증가하겠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호르무즈해협 사태로 세계 LNG 공급의 약 20%가 일시 중단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함
- 2026년 세계 가스화력 발전은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유의미한 증가 없이 보합에 머무는 반면, 석탄화력 발전은 증가할 전망이다
- 202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 이상 증가해 석탄화력을 넘어설 전망이며, 발전 비중은 2025년 33%에서 2027년 37%로 확대됨
- 2026년 2분기 유럽연합과 일본의 평균 도매 전력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반면, 미국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26년 1% 증가한 뒤, 2027년에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가 석탄화력을 대체하며 정체될 전망이다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7) 국제에너지기구(IEA), 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6(2026.07.23.), <https://www.iea.org/reports/electricity-mid-year-update-2026/executive-summary>(2026.07.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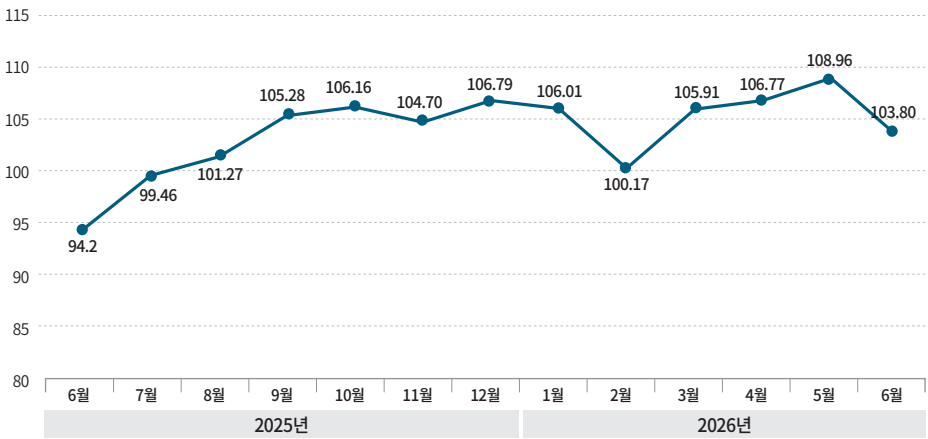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026년 6월 철광석 가격, 석 달 만에 하락 전환

- 2026년 6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4.7% 하락한 톤당 103.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2% 상승함
- 2026년 2월 저점 이후 3~5월 세 달 연속 상승하며 5월 톤당 108.96달러까지 올랐으나, 6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0	106.79	106.01	100.17	105.91	106.77	108.96	103.80	-4.7	10.2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7.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7.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인도, 2030년 철강 3억 톤 목표에 고품위 철광석 수입 구조화 전망³⁸⁾

-  인도가 2030년 철강 생산능력 3억 톤 목표를 앞두고, 자국산 저품위 철광석의 선광 한계로 약 4천만 톤의 철광석 공급 부족이 예상됨
 - 2030년 생산능력 3억 톤 가운데 실제 생산량은 약 2억 2천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약 5억 톤의 철광석이 필요함
 - 인도 내 철광석 생산은 약 3억 톤이나 이 중 4천만 톤이 수출되면서 자국 내 가용량은 약 2억 5천만 톤에 그침
 - 신규 광산 개발과 국영 광업기업의 증설을 감안해도 2030년 약 4천만 톤이 부족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전망이다
 - 인도산 광석은 적철광 중심으로 알루미늄, 실리카 불순물이 많아 선광이 자본 집약적이며, 선광 설비 가동률은 45%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 인도 내 가격이 국영 기업 주도 경매로 결정돼 국제가격과 괴리가 크고 헤지 관행도 정착 되지 않아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인도 시장 형성이 지연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8) Fastmarkets(2026.07.01.),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indias-iron-ore-paradox-points-to-a-structural-high-grade-import-gap-as-2030-steel-targets-near-iron-ore-decoded-2026/> (2026.07.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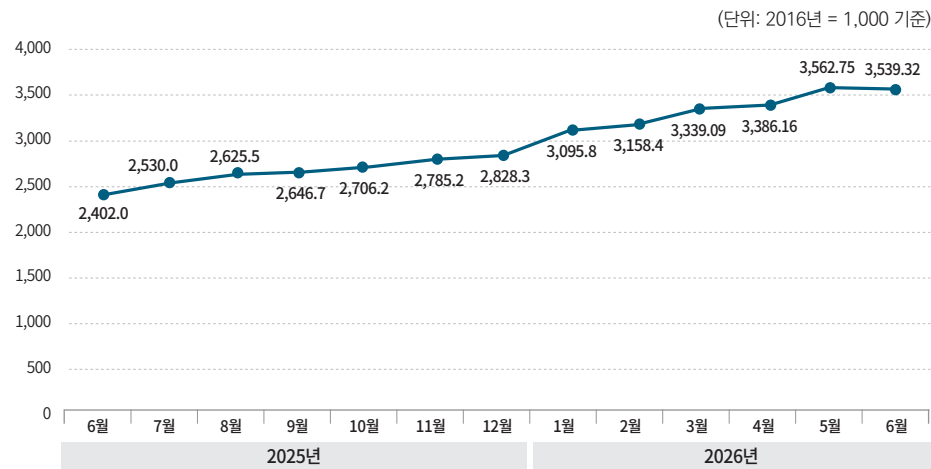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026년 6월 광물종합지수, 상승세 마감하며 소폭 하락 전환

2026년 6월 광물종합지수는 3,539.32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7.3%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 대비 0.7% 하락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3,095.8	3,158.4	3,339.09	3,386.16	3,562.75	3,539.32	-0.7	47.3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 (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7.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미국 정제구리 관세 결정 지연으로 미국 외 지역 공급 부족 심화³⁹⁾

- 미국 상무부가 정제구리 관세 권고 시한인 2026년 6월 30일을 넘기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를 앞둔 재고 이전으로 미국 외 지역의 구리 공급 부족이 심화됨
 - 미국은 2025년부터 구리관·전선·봉 등 반제품 구리에 50% 관세를 적용해 왔으며, 제련·가공용 핵심 원료인 정제구리 음극재는 면제 대상으로 유지됨
 - 대통령 포고에 따라 상무부는 정제구리 음극재에 2027년 1월 15%, 2028년 1월 30%의 단계적 관세 부과 여부를 2026년 6월 30일까지 권고해야 했으나, 공개 결정 없이 시한이 경과함
 - 결정 지연으로 2026년 들어 약 90만 톤의 구리가 미국 창고로 이동하면서 미국 외 지역의 가용 공급이 축소됐으며, COMEX와 LME 간 가격 격차는 6월 초 톤당 약 400달러까지 확대됨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6년 구리 수급 전망을 4월 글로벌 49만 톤 흑자에서 6월 미국 외 지역 64만 톤 적자로 수정했으며, 2027년에도 17만 톤 적자를 전망함
 - 칠레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의 엘테니엔테 광산 생산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고,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의 그라스버그 광산도 완전 재가동 시점이 불확실해 미국 외 공급 부족을 상쇄할 여력이 제한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9) Crux Investor(2026.07.13.), <https://www.cruxinvestor.com/posts/us-copper-tariff-delay-diverges-from-what-markets-priced-in-leaving-a-640-000-tonne-ex-us-deficit>(2026.07.24. 검색)

8) 목재



1 2026년 1~6월 국내 목재 주요 품목 수입 동향

- 2026년 1~6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목(72만 4천㎥, -5.7%)과 합판(66만 9천㎥, +3.7%)은 감소 폭이 완화되거나 소폭 증가로 전환된 반면, 제재목(62만 5천㎥, -13.2%)과 성형목재(2만 6,311톤, -28.0%)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감
 - 파티클보드는 55만 7천㎥로 전년 동기(67만 2천㎥) 대비 17.1%, 섬유판은 9만 2천㎥로 13.2% 각각 감소하며 가공용 목재 품목의 수입 위축이 지속됨
 - 목재펠릿은 153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199만 3천 톤) 대비 23.1% 감소하며 에너지용 목재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6년 누적 (1-6월)	2025년 누적 (1-6월)	증감률 (%)
원목(천㎥)	724	768	-5.7
제재목(천㎥)	625	720	-13.2
성형목재(톤)	26,311	36,541	-28.0
합판(천㎥)	669	645	+3.7
파티클보드(천㎥)	557	672	-17.1
섬유판(천㎥)	92	106	-13.2
목재펠릿(천 톤)	1,533	1,993	-23.1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6.06.23.),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220443&bbsId=BBS_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7.2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220443&bbsId=BBS_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7.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캐나다 서부 산불 확산으로 미국 목재 선물 가격 1년 최고치 경신⁴⁰⁾

-  2026년 7월 27일 기준 미국 목재 선물 가격은 1,000보드피트(board feet)당 650달러로 전월 대비 5.27% 상승하여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 서부 지역 산불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를 포함한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9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작업장에 대피 경보가 발령되었음
 -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약 35%의 캐나다산 목재 관세에 산불 관련 비용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여 공급 불안을 가중시킴
 - 캐나다산 목재 관세 부담에 따른 생산 감소·제재소 폐쇄와 미국산 원목의 중국 수출 증가로 목재 공급망이 악화되면서 공급 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7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19% 급증하였으나 목재 수요가 낮은 다가구 주택 위주의 증가에 그쳐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부족이 이번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0) Trading Economics(2026.07.27.),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lumber>(2026.07.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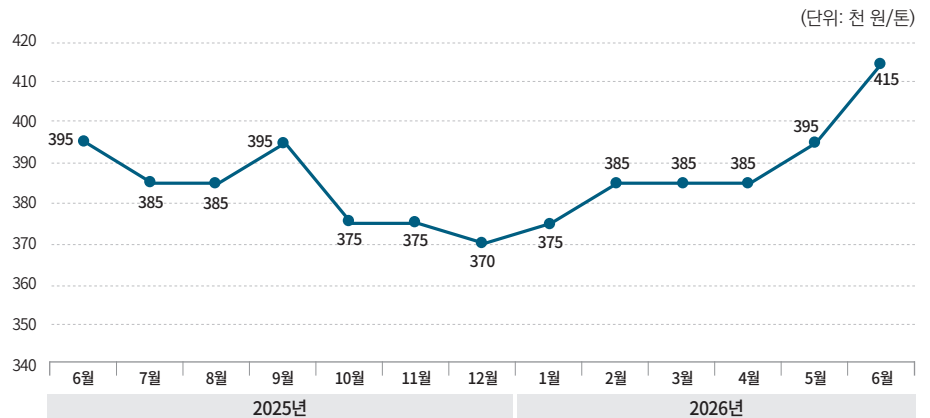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2026년 6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2개월 연속 상승, 41만 5천 원/톤으로 회복세 강화⁴¹⁾

- 2026년 6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41만 5천 원/톤으로 전월(39만 5천 원/톤) 대비 2만 원/톤(+5.1%)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전년 동월(2025년 6월, 39만 5천 원/톤) 대비로도 2만 원/톤(+5.1%)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흐름을 유지함
- 2026년 2월~4월 38만 5천 원/톤 수준의 보합세에서 5월 39만 5천 원/톤으로 반등한 데 이어, 6월에는 41만 5천 원/톤으로 추가 상승하며 2025년 5월(41만 5천 원/톤) 수준을 회복함
- 5~6월 국내 철스크랩 수입 역대 최저 수준 지속에 따른 시중 수급 압박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06.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7.27.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7.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1)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06.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7.27.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7.27. 검색))

2 일본제철, 철스크랩 구매업무 본사 통합 및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9년부터 스크랩 사용량 300만 톤 확대⁴²⁾

-  일본 최대 철강기업 일본제철(Nippon Steel)은 기존 제철소별 개별 구매 방식에서 본사 통합 구매 방식으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전환하고 구매 등급체계도 일부 개편해 탈탄소 생산체제에 최적화하겠다고 납품협력사들에게 전달함
 - 등급체계 개편의 핵심은 구리(Cu) 함량이 낮은 스크랩과 불순물 원소가 적은 경량 스크랩에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프레스 스크랩과 저(低)Cu 스크랩이 프리미엄 등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 일본제철은 2029년까지 규슈 제철소(야와타 지구), 세토우치(瀬戸内) 제철소(히로하타 지구), 야마구치 제철소(슈난)에 전기로 3기를 신설·증설·재가동하여 총 290만 톤의 전기로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특히 6월 15일 착공한 규슈 제철소 야와타 지구 연산 200만 톤 규모 전기로는 2029년 하반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가동 시작과 함께 월 17만 톤의 신규 스크랩 수요가 발생하여 지역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제철의 스크랩 등급체계 개편으로 저Cu 스크랩과 일반 스크랩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며, 불순물 원소 분석·선별 능력을 갖춘 스크랩 기업과 X선·레이저 방식 성분분석 장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스크랩워치(2026.07.23.),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27>(2026.07.27.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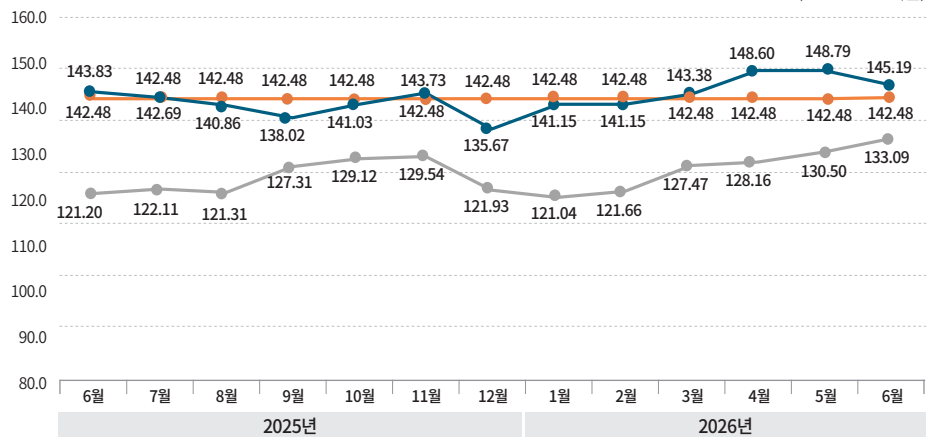
1 2026년 6월 국내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슬래브 하락 전환한 반면, 빌렛은 상승세 유지

- 2026년 6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물가지수는 슬래브가 하락 전환한 반면 빌렛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냄
 - 선철은 2026년 6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전년 동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장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026년 6월 145.13으로 전월(148.79) 대비 2.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143.83) 대비로는 0.9%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 빌렛은 2026년 6월 133.09로 전월(130.50)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21.20) 대비 9.8% 올라 세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슬래브의 전월 대비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빌렛은 오히려 상승 폭을 확대하며 반제품 품목 간 가격 흐름이 엇갈림
 - 빌렛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9.8%)은 5월(+7.7%) 대비 확대되며 회복세가 강화됨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0
슬래브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143.38	148.60	148.79	145.19	-2.4	0.9
빌렛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127.47	128.16	130.50	133.09	2.0	9.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7.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포스코경영연구원, 전 세계 고로 71% 2030년 이전 수명 종료, 탄소중립 전환의 최대 분수령 전망⁴³⁾

-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경쟁력 시대의 철강산업 재편’ 보고서에서 전 세계 고로(高爐)의 71%가 2030년 이전 수명이 종료될 것이며, 이 시점이 세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설비 방식별 생산원가는 고로 519달러, 전기로 495달러,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DRI) 전기로 방식 1,031달러(2025년 기준)로 수소 기반 생산비용은 기존 방식의 최대 2배 수준에 달해 탈탄소 전환 투자가 잇따라 지연·취소되고 있음
 - 세계 2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프랑스 덩케르크(Dunkerque) 제철소의 수소 기반 DRI-전기로 투자계획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청정 수소 조달 비용 문제로 수소 구매 입찰을 무기한 중단함
 - 스웨덴 친환경 철강기업 스테그라(Stegra)도 그린수소 DRI 공장 완공 시점을 2027년 전후로 연기하였으며, 로이터(Reuters)는 전 세계 탈탄소 전환 프로젝트 중 실제 건설 단계에 진입한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철강조사분석기관 WSD는 글로벌 전기로 생산 비중이 2024년 29%에서 2030년 36%, 2040년 48%로 확대되고, 중국도 2024년 10%에서 2040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전기로 확산에 따라 스크랩 사용 비중이 현재 29% 수준에서 4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3) 스크랩워치(2026.07.27.),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73>(2026.07.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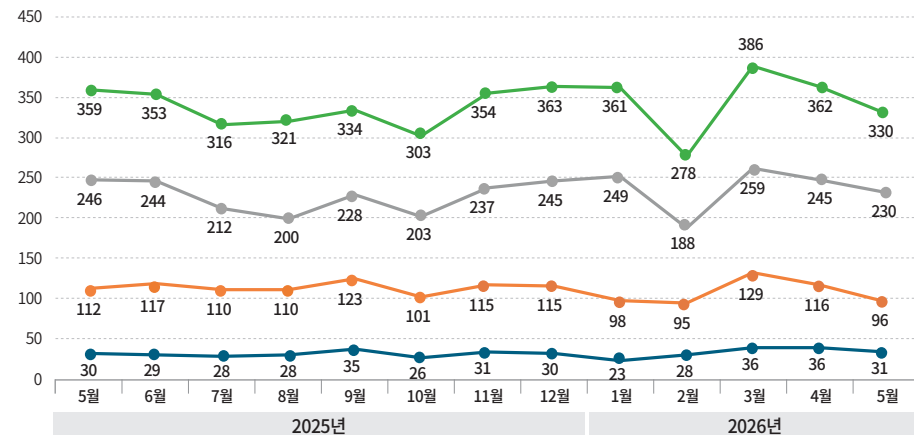
11) 자동차



월별 자동차산업 통계

- 국산차 판매
- 수입차 판매
- 수출
- 생산

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부품 수급 차질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국산차 판매	112	117	110	110	123	101	115	115	98	95	129	116	96	-17.0	-14.2
수입차 판매	30	29	28	28	35	26	31	30	23	28	36	36	31	-13.1	4.8
수출	246	244	212	200	228	203	237	245	249	188	259	245	230	-6.2	-6.6
국내 생산	359	353	316	321	334	303	354	363	361	278	386	362	330	-8.9	-8.2

주: 월간 확정치를 취합하여 재작성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7.16.),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2026.07.27. 검색)

5월 내수는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27,308대를 기록함

- 부품사 화재에 따른 공급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신차 출시를 앞둔 일부 주력 차종의 판매 둔화가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친환경차 내수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HEV 판매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77,280대를 기록함
- EV 내수는 국산차와 수입 브랜드 모두 높은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HEV는 국산차 판매가 부품사 화재의 영향을 받아 2개월 연속 감소함

5월 수출은 전월 대비 6.2%,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한 230,264대를 기록함

- 부품사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이 확대되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일부 지역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업체의 수출이 감소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83,142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6.1%를 차지함
- 공급 차질로 인한 현대·기아의 친환경차 수출물량 조정과 유럽의 PHEV 감소에도 유럽의 EV와 미국의 HEV 수요가 친환경차 수출을 뒷받침함

5월 생산은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329,533대를 기록함

- 부품사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생산 실적에 영향을 미침
- 업체별 생산은 현대 12.0%, 기아 2.0%, 한국지엠 6.6%, KG모빌리티 8.0%, 르노코리아 46.5% 감소함

단위 : 대, 백만 \$, %

2026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5월	5월 누적	4월	5월	5월 누적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5월 누적 대비
내수	1,680,110	141,865	680,786	151,693	127,308	687,905	-16.1	-10.3	1.0
(국산차)	1,355,296	112,200	563,051	115,937	96,233	533,847	-17	-14.2	-5.2
(수입차)	324,814	29,665	117,735	35,756	31,075	154,058	-13.1	4.8	30.9
OEM 수입	17,925	1,506	7,701	1,792	1,230	8,207	-31.4	-18.3	6.6
수출	2,736,109	246,423	1,167,184	245,456	230,264	1,172,939	-6.2	-6.6	0.5
(완성차 수출액)	71,975	6,198	30,009	6,166	5,833	29,241	-5.4	-5.9	-2.6
(부품 수출액)	21,075	1,654	8,916	1,894	1,552	8,323	-18.1	-6.1	-6.6
생산	4,102,200	358,969	1,757,871	361,923	329,533	1,716,573	-8.9	-8.2	-2.3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자동차등록통계+국내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Tesla 합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7.16.),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7.27.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금속노조 총파업에 현대차·한국GM 등 8만 5천 명 참여⁴⁴⁾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5일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 단위 총파업을 실시함
 - 직접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만 9천 명과 교육·총회 방식으로 참여한 6천여 명을 포함해 총 8만 5천 명이 참여함
 - 파업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등을 요구함
 -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인권 보호,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됨
-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노조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총파업에 참여함
 -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두고社측과 이견을 지속한 가운데 7월 13일부터 근무조별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함
 -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미래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함
 - 2026년 7월 15일 기준 쟁의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약 10만 1천 명으로 집계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동행미디어 시대(2026.07.15.), [https://www.sidae.com/article/2026071516461368889\(2026.07.27. 검색\)](https://www.sidae.com/article/2026071516461368889(2026.07.27. 검색))

3 수입규제·중동 전쟁·운임 상승에 따른 인천항 중고차 수출 감소⁴⁵⁾

- 2026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27만 5,551대로 전년 동기 37만 2,350대보다 25.9%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의 수입 규제 강화와 미국·이란 전쟁,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2025년 중고차 수출량은 74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6년 연간 수출량은 약 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주요 수출국은 리비아 5만 6,731대, 키르기스스탄 4만 821대, 알바니아 2만 1,417대, 타지키스탄 1만 5,869대, 러시아 1만 1,341대 순임
- 수입 장벽 확대와 중동 항로 불안으로 주요 시장의 수출 여건이 악화됨
 - 시리아는 연식 2년 초과 중고차 수입을 금지해 해당 수출량이 전년 상반기 1만여 대에서 3,625대로 감소함
 - 러시아는 중고차에 재활용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국가는 유럽 CE와 걸프협력회의(GCC) 인증 절차를 요구함
 -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행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상반기 UAE 수출량은 8,313대에 그침
- 컨테이너 운임 상승도 중고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확대함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6년 2월 27일 1,333에서 5월 29일 2,571, 7월 3일 3,326으로 상승했으며, 물류비 증가로 일부 수출업체가 선적 시기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함

상반기 인천항 중고차 수출량

1위	리비아	5만 6,731	단위: 대
2위	키르기스스탄	4만 821	
3위	알바니아	2만 1,417	
4위	타지키스탄	1만 5,869	
5위	러시아	1만 1,341	

자료: 한경닷컴(2026.07.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449831>(2026.07.27.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한경닷컴(2026.07.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449831>(2026.07.27.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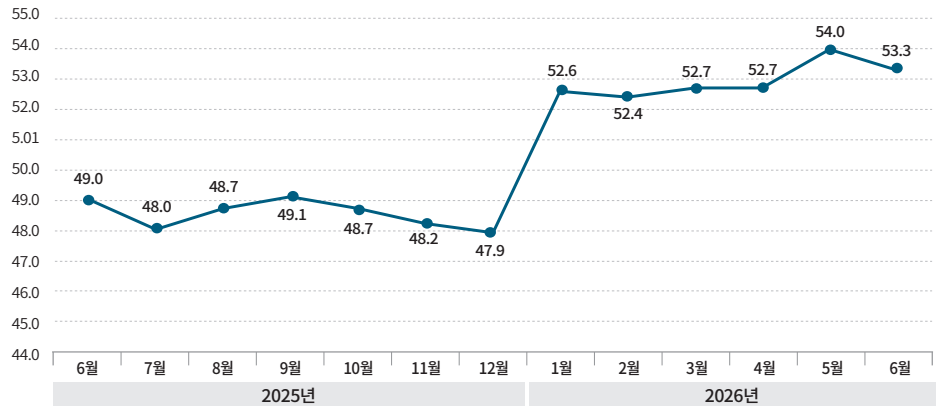


2026년 6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3.3 기록, 확장 국면 6개월 연속 유지

1

- 2026년 6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54.0) 대비 하락한 53.3을 기록했으나, 기준선(50)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을 6개월 연속 유지함
 - 2026년 1월 52.6으로 급반등한 이후 52~54p대의 안정적인 확장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5월 54.0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 소폭 조정됨
 - 20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확장 기조가 공고해짐
-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큰 폭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월(54.0) 대비 1.3% 하락하며 5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높은 확장 수준을 유지함
 - 전년 동월(49.0) 대비 4.3p(8.8%) 상승하며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됨
-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생산 및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신규주문 및 생산지표의 지속적 개선 여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49.0	48.0	48.7	49.1	48.7	48.2	47.9	52.6	52.4	52.7	52.7	54.0	53.3	-1.3	8.8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7.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7.25. 검색\)](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7.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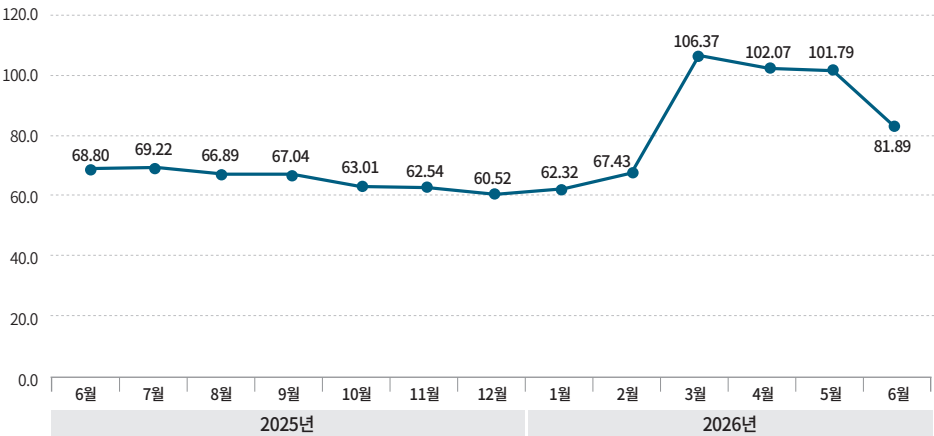
13) 유류



1 2026년 6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19.6% 하락

- 6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19.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9.0% 상승한 81.89달러를 기록함
 - 2025년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함
 - 2월 28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3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6월 중순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크게 하락함
 -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유가는 하락했으나 7월에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아직 중동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통행료 징수 등의 이슈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유가 추이는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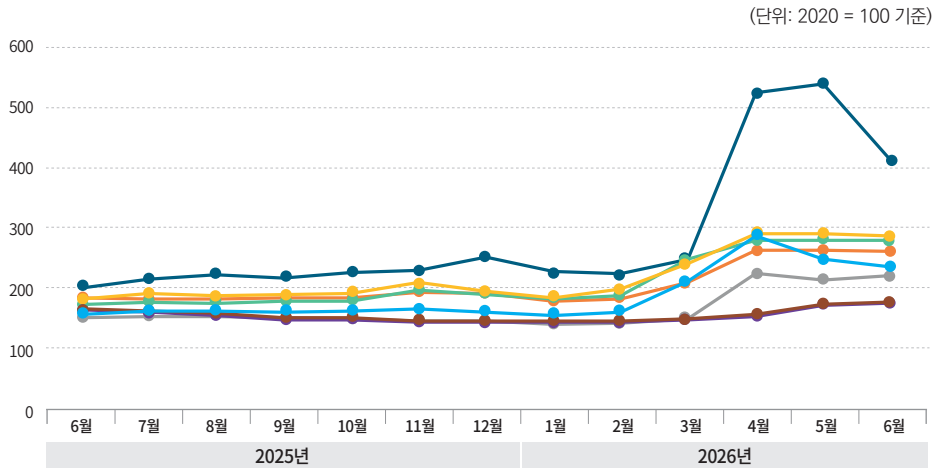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28.52	105.70	103.15	79.45	-23.0	14.7
Brent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99.60	102.46	103.71	84.43	-18.6	21.0
WTI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91.00	98.06	98.51	81.79	-17.0	21.5
평균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106.37	102.07	101.79	81.89	-19.6	19.0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7.27.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7.27. 검색))

2 2026년 6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 제트유 하락, 병커C유·LPG 상승

- 6월 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제트유가 전월 대비 23.4% 하락했으나, 병커C유는 3.4%, LPG(부탄, 프로판)는 2.2% 상승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산출되는 석유제품은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전년 동월 대비 제트유(103.8%), 등유(59.7%), 경유(57.1%)가 50% 이상 상승함
 - 다만, LPG(부탄, 프로판)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타 석유제품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임

주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185.65	185.22	183.54	187.01	185.28	194.82	192.80	181.19	183.55	211.68	265.58	265.52	263.29	-0.8	41.8
제트유	203.04	216.72	224.04	219.69	228.03	231.42	253.78	229.72	226.17	249.67	525.83	540.48	413.74	-23.4	103.8
등유	175.81	179.58	177.38	180.17	180.35	199.53	192.10	183.47	190.22	249.25	282.00	282.06	280.70	-0.5	59.7
경유	183.89	193.77	189.98	191.88	192.88	212.31	196.89	186.87	200.77	242.49	292.58	292.78	288.94	-1.3	57.1
중유	159.33	165.12	164.06	163.28	163.56	168.14	163.07	157.79	162.96	213.30	289.27	250.26	237.53	-5.1	49.1
병커C유	153.43	155.68	154.79	152.57	150.69	147.88	147.85	142.81	143.44	150.93	226.71	215.43	222.81	3.4	45.2
프로판	165.88	162.10	157.19	150.49	150.49	146.20	146.20	146.20	146.20	149.49	155.59	173.14	176.87	2.2	6.6
부탄가스	168.50	165.07	160.80	153.49	153.49	148.38	148.38	148.38	148.38	151.67	157.95	175.87	179.67	2.2	6.6

주: 주요 석유제품인 나프타는 화학공업생산품의 주요 지표로 정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7.27. 검색)

2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른 원유 위기경보 하향 및 천연가스 경보 해제⁴⁶⁾

- 정부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고 천연가스 주의 경보를 해제함
 -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원유 경보는 2026년 3월 5일 관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순차 격상된 바 있음
 - 천연가스는 2026년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했으나 대체 물량 확보에 따라 경보가 전면 해제됨
 - 정부는 2026년 7월 원유를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를 95% 이상 확보했으며 8월 원유 도입 물량도 90% 이상 확보함
- 非중동산 원유와 우회 항로 활용 확대를 통해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됨
 - 사우디아라비아 안부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는 항로를 통한 공급이 증가했으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非중동산 원유 수입이 확대됨
 -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 공급 불가항력 선언 이후 정부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 2026년 연말까지 사용할 천연가스 물량을 마련함
- 정부는 수급 안정에 따라 일부 비상조치를 종료하되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유지함
 -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은 2026년 6월 30일 종료함
 - 특정 품목의 간헐적 공급망 병목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지속할 방침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MBN뉴스(2026.06.30.), <https://www.mbn.co.kr/news/society/5202868>(2026.07.27. 검색)

3 정부,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 이상 증설 및 나프타 비축 검토⁴⁷⁾

-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이상 증설할 방침임

 -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원유 등 석유류 비축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함
 - 중동 전쟁 과정에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으나 정부 비축분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증설 배경으로 제시함
 - 나프타의 높은 휘발성과 장기 보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유 비축 확대와 나프타 직접 비축의 효율성을 비교·검토할 계획임
-  정부는 나프타를 신규 비축 품목에 포함하거나 콘덴세이트로 대체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 나프타 직접 비축이 어려운 경우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덴세이트를 대신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료용 요소도 원료와 완제품을 새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부는 공급망 위기 시 필수 원료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축 품목과 방식을 확대할 방침임
-  국내 생산 촉진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함

 -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생산량과 판매량에 연동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임
 -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함
 -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 저리대출 한도를 기존 80~9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조선비즈(2026.07.14.),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14/QF7LJSMPSJF6VI2DTHMBPVEO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6.07.27. 검색\)](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14/QF7LJSMPSJF6VI2DTHMBPVEO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6.07.27. 검색))

4 이란, 미국 해상 봉쇄 회피를 위한 그림자 함대 운용⁴⁸⁾

-  미국의 이란 항구 해상 봉쇄 재개 직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이란 선박 23척이 국적 위장과 위치신호 차단 등을 통해 추적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됨

 - 해양안보 정보업체는 해당 선박들이 국적을 위장하거나 위치발신장치(트랜스폰더)를 끄는 방식으로 ‘깜깜이 선박(dark vessel)’으로 운항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이처럼 선박의 신원과 위치를 숨긴 채 운항하는 선단을 그림자 함대라 지칭함
 - 화물 추적업체에 따르면 23척 중 10척은 화물을 적재했고, 13척은 공선 상태였으며, 이 중 7척은 원유를 가득 실은 대형 유조선으로 파악됨
-  이란은 우회 항로와 원산지 위장 등을 활용해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출을 지속함

 - 이란 유조선 A는 이란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이라크 바스라 원유터미널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이용함
 - 이란은 위장 회사, 원유 맞교환, 불투명한 금융거래 등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해왔으며, 이란산 원유의 약 80%는 중국이 구매함
 - 제재 완화 기간에도 이란은 그림자 함대를 활용해 2026년 6월 약 5,000만 배럴, 특정 1주일에는 하루 1,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수출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했으나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으며, 교역 제한으로 이란의 물가 상승이 심화됨

 - 2026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어진 1차 봉쇄가 원유 수출을 제한했으나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이 지속됨
 - 이란은 정부 수입의 약 50%를 원유 판매에 의존하며, 전체 교역의 약 90%가 페르시아만을 통해 이뤄짐
 - 최근 1년간 이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50% 수준이며, 식품품 물가상승률은 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이데일리(2026.07.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8646645514848&mediaCodeNo=257&OutLnkChk=Y\(2026.07.27.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8646645514848&mediaCodeNo=257&OutLnkChk=Y(2026.07.27.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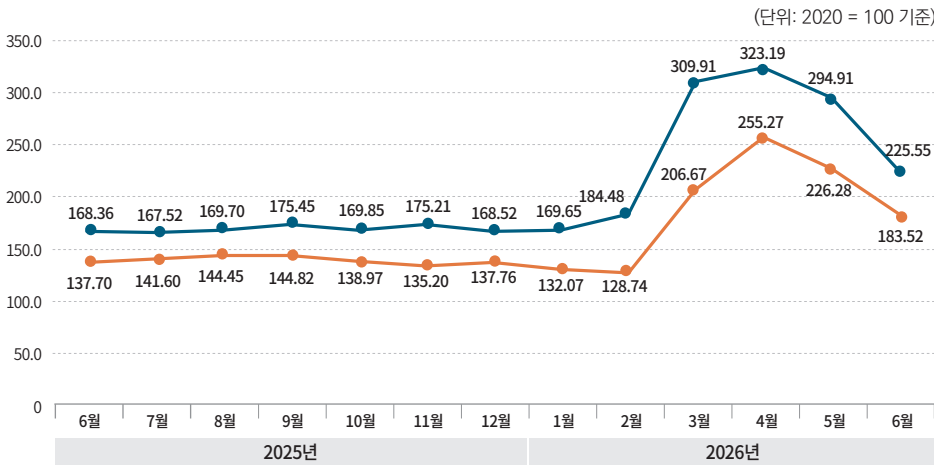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및 에틸렌 하락 전환

- 6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23.5%, 18.9% 감소한 225.55p, 183.52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하락함
 -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에틸렌 등을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합성수지·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 국제유가와 원료가격 변동이 생산비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여부에 따라 유가 변동이 발생하면,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도 시차를 두고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309.91	323.19	294.91	225.55	-23.5	34.0
에틸렌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28.74	206.67	255.27	226.28	183.52	-18.9	33.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7.25.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7.25.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 구조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⁴⁹⁾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첫 구조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함

 -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기업결합 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피심인에게 송부함
 - 심사보고서에는 일부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반영됐으며, 최종 승인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운영하는 구조임

 -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의 물적분할 신설법인인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함
 - 거래 완료 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각각 HD현대케미칼 지분 50%를 보유하는 공동 최대 출자자가 되며, 양사는 대산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임
-  공정위는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심사함

 - 공정위는 20개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함
 - 심사관은 수정·보완 내용을 반영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신속히 위원회 심의를 열어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헤럴드경제(2026.07.1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9614?ref=naver\(2026.07.27. 검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9614?ref=naver(2026.07.27. 검색))

3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석유화학 2호 사업재편 지연⁵⁰⁾

-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4개사의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이 금융지원 방안 확정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함
 - 4개사는 2026년 7월 말까지 1조 5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 정부의 최종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함
 - 사업재편 대상기업 선정 이후 실사가 진행됐으나 금융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업계에서는 사업재편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기업의 미래 재무상황과 지원 타당성 판단이 어려워짐
 - 채권단은 나프타 가격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 현금흐름, 정상화 가능성과 사업재편 실효성을 검토함
 - 전쟁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변동하면서 필요한 지원 자금과 지원 방식, 대주주와 채권단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며, 업계는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지원안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일부 기업의 단기 실적 개선에도 석유화학 업황 침체가 이어져 신속한 사업재편 필요성이 제기됨
 - 석유화학업계는 2026년 1·2분기 재고 래깅 효과로 일시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롯데케미칼은 1분기 영업이익 735억 원을 기록했고,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 1,648억 원을 기록함
 - 여천NCC는 1분기 영업손실 242억 원을 기록해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는 단기 실적과 별개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이코노미스트(2026.07.10.),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7100025>(2026.07.27. 검색)

연구책임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현수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찬호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